



2021년 1월 10일(제1017호) 주님 시레 특집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이름”

칼같이 각이 잡힌 팔각모, 조금 더 특별한 얼룩무늬의 전투복과 갈색의 세무 워커까지 해병대는 복장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도 해병대를 상징하는 것 하면 역시 빨간 명찰입니다. 피와 정열, 용기, 신의 그리고 약동하는 젊음을 조국에 바친 해병대의 전통이 담긴 빨간색 바탕에 인내를 뜻하는 노란색으로 이름을 새긴 명찰을 볼 때면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됩니다.

위문이나 교육을 다니면서 해병들과 만날 때마다 저는 그들의 이름을 존중을 담아 부릅니다. 그 빨간 명찰을 가슴에 품기 위해 흘렸던 그들의 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종교행사 시간에 해병들이 성당에 찾아올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빨간 명찰에 담긴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세례명으로 부릅니다. 하느님의 집인 성전에 찾아온 그들은 해병이기에 앞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품 안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 학창 시절 첫영성체를 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 대학교 가톨릭학생회 활동을 하다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교육훈련단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까지... 부르심의 방식은 각자 다를지라도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같은 빵을 나누는 모두는 형제이자 자매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집전하는 사제를 통해서 불러주신 이름, 곧 세례명은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저도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품에서 받은 유아세례 때 ‘데니스’라는 세례명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6년 전 사제가 된 뒤로는 ‘데니스 신부님’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소중한 세례명이 아니라 ‘군종장교’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이름, 곧 세례명으로 불릴 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됨을 이 시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서로를 세례명으로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례명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례받던 순간 분명 우리 안에도 울려 퍼졌을 하느님의 음성을 묵상해 보면서...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딸)이다.”



이희신(데니스) 신부  
독룡(해병6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42,1-4.6-7

회 답 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제 2 독 시

사도 10,34-38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 음

마르 1,7-11

영 성 제 송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 상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 네 번째 시한

강 오른쪽에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보산(寶山)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오송구(吳淞口)라고 합니다. 오송구는 양자강의 황해(黃海) 어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도시는 영국군들의 공격으로 주민들은 모두 피난하여 텅 비었고 전투 때문에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오송구 방면에서, 운하라는 말이 더 맞는 두 개의 강들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데, 작은 것은 운조방(Qun-tso-pang)이라고 하고, 큰 것은 황포강(黃浦江)이라 합니다. 황포강은 상해 시내를 통과합니다.

상해는 해안에서 40리 떨어져 있는 도시로 영국인들에게 개항된 항구 중 하나입니다. 7월 하순에 영국군이 남경을 점령하려 진격한 지 약 15일 후, 중국 제2급 도시인 진강부에 도달하여 단시일에 함락시키고 요새에 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백 명 이상의 영국 군인들과 3천 명의 달단(韃靼) 군인들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서 전쟁을 지휘하던 달단군의 장군은,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와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자녀들과 온 가족이 다 함께 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출발할 날을 고대하며 오송구에서 썩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실 함장이 남경(南京)시를 구경하기를 위해서 중국 배 한 척을 임대하였는데, 에리곤호는 강을 거슬러 오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3명의 장교와 선원들을 데리고 출발하였는데, 저는 통역관으로 따라갔으며, 매스트르 신부님은 에리곤호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출발한 지 약 6일 만에 진강부에 도착하여, 하루 동안 도보로 시가지를 걸어다니면서 구경하였는데, 전쟁으로도 파괴되고 강도들의 습격으로도 약탈되어 폐허가 된 시가지는 사방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시가는 두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달단인들의 거주지였고 하나는 중국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이것은 양자강 오른쪽에 건설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중국인들이 운량호라고 부르는 제국 운하가 흐르는데,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문이 9개나 있다고 합니다.

진강부와 제국 운하 사이에 금산(金山) 즉 금으로 된 섬이라고 부르는 중국인들에게 매우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초목이 울창한 그 섬에는 두 명의 황제 무덤과 황제 직할의 절과 고대로부터 유명한 제국 도서관이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그 절에 3천 명의 승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상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상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인 호**



당신께서  
성별하여,

내 손에  
기름으로  
축복하시어,

당신의 묵으로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묵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내님께서.

상화이야기

세례받으시는 예수님



그림의 중앙에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의 몸 위로 부드러운 빛을 비추고 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몸은 펑크빛에 가까운 흰색으로 채색되어 부드러우면서 견고하며 입체적인 느낌을 준다. 오른쪽 배경에는 뒤이어 세례를 받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남성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왼쪽에는 세 명의 천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흐르는 강에는 하늘이 반사되어 그려져 있다.

흐르는 강물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하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라는 상징을 드러낸다. 예수님 옆의 나무는 생명의 나무로 무성한 잎이 반짝이고 있지만, 예수님 뒤쪽 산의 나무들은 잘려 나가 밀동만이 남아있다. 이것은 수난을 상징하는 것이다.



피레오 델리 프란체스카, 1448년~1450년 제작  
피넬 위 템페라 채색, 167x116cm / 니셔블 갤러리, 영국 린던

그림은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 정지된 분위기인데, 이러한 침묵과 정지된 느낌이 그림에 영원성을 부여한다. 모든 인물은 영원히 그러나 매우 우아하게 정지되어 있어 예수님의 세례식을 현재 눈앞에서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김은혜(엘리스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세례 축일: 국군중앙 김영태 신부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